

---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中·高等學校 學生의  
政治態度發達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 自 鉉

1992年 2月

# 濟州道 中 · 高等學校 學生의 政治態度發達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2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金 自 鉉



金自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國 文 抄 錄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를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치태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또 성별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시에 소재한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1,124명을 표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영역으로 나누고 정치태도를 측정하였다. 자료처리는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전산처리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영역별에 따른 정치태도는 각 문항별로 백분율(%)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성별, 학년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정치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고 통계치 차이가 유의수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하였으며, 또 각 태도변인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계수를 조사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치신뢰감이 높게 나타나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의무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은  $p < 0.05$ 의 수준에서, 정치효능감은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시민의무감은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민으로서 국가와 정부에 대해 해야 할 본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 3에서는 시민으로서 의무감이 낮아지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중학생은 일관성이 보이지 않으나 고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

다. 정치신뢰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치불신감이 나타나고 있고,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시민의무감은  $p < 0.05$ 의 수준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정치신뢰감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연령별, 부모의 직업별, 가정의 생활정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태도는 정치체도의 산출국면에 대한 정향인 시민의무감과 정치신뢰감의 승이 긍정적인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치태도의 투입국면에 대한 정향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감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여적 정치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시민의무감과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 사이에는 正的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불신감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정치태도를 형성하고 참여적 정치문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민주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 및 합리적인 사고를 조장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체제로 개선해야 하며, 또한 교사 자신도 민주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치태도를 형성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학교, 사회가 관심을 갖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目 次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2
II. 研究方法	3
1. 研究對象	3
2. 變因과 測定道具	3
3. 資料處理	4
III. 理論的 背景	8
1. 政治態度的 概念	8
2.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	14
3. 政治文化와 政治態度	24
IV. 結果 및 論議	33
1. 領域別에 따른 政治態度	33
2. 背景變因別에 따른 政治態度	39
3. 各 變因에 따른 政治態度的 差異	51
4. 各 變因間의 相關關係	55
V. 結論：要約 및 提言	57
1. 要 約	57
2. 提 言	58
參考文獻	60
英文要約	65
附 錄	67

## 表 目 次

표 1. 학교별 질문지 실시 대상자 회수현황 .....	4
표 2. 배경변인별 표집인원 .....	5
표 3. 질문지의 문항구성 내용 .....	6
표 4. 시민의무감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	33
표 5. 정치효능감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	35
표 6. 정치신뢰감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	36
표 7. 정치참여감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	38
표 8. 性別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	40
표 9. 학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	42
표10.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	44
표11.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	46
표12. 부모의 직업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	48
표13. 가정의 생활정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	50
표14. 정치태도의 발달 .....	51
표15. 정치태도에 따른 정치문화 .....	54
표16. 각 정치태도간의 상관관계 .....	55

## 그 립 目 次

그림1. 정치태도의 가상적 발달 모형 .....	19
그림2. 정치사회화 담당기관에 의한 정치태도 습득정도 .....	20
그림3. 정치태도의 유형 .....	31
그림4. 중·고등학교 학생의 정치태도 .....	53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는 지난 45년 이상을 민주정치를 하려고 해 왔으나 아직도 민주주의가 정착되지도 않았고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政治的 態度에도 권위주의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 나라의 정치는 法, 制度, 정치 단체의 분포, 경제적·사회적 조건이나 국제적 여건에도 달려 있지만 그 나라의 정치문화에 크게 달려있다. 政治文化는 국민의 政治的 定向이나 性向을 결정지어주고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정치발전에 있어서 그 만큼 政治文化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sup>1)</sup>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적인 가치, 태도, 신념 및 행동양식들을 가질 때 민주정치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定向들은 政治社會化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권위주의적인 政治文化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으며, 그나마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시민문화적인 參與的 政治文化를 전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가치·태도를 심어주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 때에 그 기초자료가 되는 학생들의 政治態度를 조사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고 필요한 일이다.

本 研究의 목적은 濟州道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政治態度를 市民義務感, 政治效能感, 政治信賴感, 政治參與感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여, 政治態度는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또 性別과 社會·經濟的 背景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1) 李永鎬(1981), "政治社會化過程," 「韓國政治論」, 金雲泰 編, 博英社, pp.182~183.

이 研究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政治態度의 발달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政治態度의 발달에 性別, 사회·경제적 배경별에 따른 차이를 밝혀, 政治教育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政治態度를 형성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셋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政治態度에 나타난 문제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2.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濟州道 中·高等學校 학생의 政治態度를 측정하여 민주주의 정착과 민주적인 政治文化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政治態度의 測定變因으로 市民義務感, 政治效能感, 政治信賴感, 政治參與感의 4가지에 국한함으로써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政治態度를 전부 측정할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의 標集選定은 제주시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 서귀포시의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로 中·高等學校가 8개 학교 1·2·3학년 남녀 학생에 국한함으로써 濟州道 中·高等學校 學生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표집으로서의 지역적인 偏頗性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背景變因도 性別, 學年別, 父母의 연령별, 父母의 학력별, 부모의 직업별, 가정의 생활정도별에 국한시켰다.

## II. 研究方法

### 1. 研究의 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남·녀 중학교 2개 학교, 남·녀 고등학교 2개 학교, 서귀포시 남·녀 중학교 2개 학교, 남·녀 고등학교 2개 학교를 표집선정하여 중·고등학교 8개 학교 24학급 중 남학생 619명, 여학생 620명 총 12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1991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각 학교의 사회과 교사의 협조로 실시되었다.

질문지 조사결과는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된 수는 1202매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전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124매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표집의 背景變因別數는 표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2. 變因과 測定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정치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4문항씩 모두 16개 문항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정치태도를 측정하였다.

문항의 제작은 정치사회화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기존의 문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그 신뢰도와 타당도는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 공인된 것이다.<sup>2)</sup> 질문지의 문항 구성 내용을 보면 표3과 같다.

2) John P. Robinson, et al(1968),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nn 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pp.483~669.

표1 학교별 질문지 실시 대상자 회수현황

지 역	학 교 별	성 별	질문지 배부수	회 수 된 수	회 수 율(%)
제 주 시	중 학 교	남	154	154	100.0
		여	155	152	98.1
	고 등 학 교	남	160	157	98.1
		여	160	156	97.5
서귀포시	중 학 교	남	150	136	90.7
		여	150	146	97.3
	고 등 학 교	남	155	147	94.8
		여	155	154	99.4
합 계	소 계	남	619	594	96.0
		여	620	608	98.1
	총 계		1239	1202	97.0



### 3. 資料處理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전산처리되었으며, 자료의 분석은 본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시민의무감과 정치효능감은 '절대 찬성이다'에 1점, '찬성이다'에 2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에 3점, '반대이다'에 4점, '절대 반대이다'에 5점으로 점수화하였고, 정치신뢰감과 정치참여감은 '대단히 많이'에 1점, '많이'에 2점, '조금'에 3점, '대단히 조금'에 4점, '전혀 안함'에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표2 배경변인별 표집인원

배 경 변 인	변 인 구 분	집 단	변인구성비 (%)	계
1. 성 별	남	553	49.2	1124
	여	571	50.8	
2. 학 년 별	중 1학년	178	15.8	1124
	중 2학년	182	16.2	
	중 3학년	189	16.8	
	고 1학년	191	17.0	
	고 2학년	191	17.0	
	고 3학년	193	17.2	
3. 학교 소재지	시	1124	100.0	1124
4. 부모 연령별	30대	57	5.1	1124
	40대	771	68.6	
	50대	278	24.7	
	60대 이상	18	1.6	
5. 부모 학력별	국졸 이하	150	13.3	1124
	중 졸	286	25.4	
	고 졸	514	45.7	
	대졸 이상	174	15.5	
6. 부모 직업별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	443	39.4	1124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14	10.1	
	상업·서비스업등 3차산업	263	23.4	
	회 사 원	85	7.6	
	공무원·교사	147	13.1	
	기 타	72	6.4	
7. 가정 생활정도별	상	37	3.3	1124
	중	997	88.7	
	하	90	8.0	

표3 질문지의 문항구성 내용

구 분	구 성 요 소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정치태도의 환 경	기 초 조 사	1	성별
		2	중·고등학교 학년별
		3	학교소재지
	가 정 환 경	4	부모의 연령
		5	부모의 학력
		6	부모의 직업
		7	가정의 생활정도
정 치 태 도	시 민 의 무 감	8	투표에의 참여 의무
		9	투표에의 참여 의무
		10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11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사표시
	정 치 효 능 감	12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가능성
		13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
		14	개인의 정치효능감
	정 치 신 뢰 감	15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소유
		16	政府施政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17	정부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
		18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
	정 치 참 여 감	19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믿음
		20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
21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	
22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관심 표명	
23		政治見解 差로 인한 의견충돌의 경험	

자료는 연구목적에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 처리하였다.

- 1) 영역별에 따른 정치태도는 각 문항별로 백분율(%)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 2) 학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발달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고, 통계치가 유의수준인 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하였다.
- 3)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정치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고, 통계치 차이가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유의수준을 얻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하였다.
- 4) 각 태도변인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간의 상관계수를 조사하였고, 이들 상관계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 Ⅲ. 理論的 背景

#### 1. 政治態度的 概念

정치태도란 심리학적, 사회학적 배경을 갖는 개념으로 그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며 일관성을 찾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연구목적에 따라 정치태도를 操作定義하여 연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어떤 사회에서나 정치적 행동은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태도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베스트(J.J.Best)는 의견, 태도, 가치를 구별하고 이들의 마음속 깊이나 지속성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의견은 가장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태도는 그 중간에 그리고 가치나 신념은 가장 깊은 곳에 있어 변동성이 적다고 한다.<sup>3)</sup> 로키치(Rokeach)는 태도를 “특수대상(형태적, 사회적, 구체적, 추상적)에 초점을 둔 몇몇 신념의 지속적인 조직이며,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선호의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sup>4)</sup>이라 하였고, 휘쉬바인과 에젠(Fishbein and Ajzen)은 태도란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기질”<sup>5)</sup>이라고 하였다. 또한 태도를 “어떤 사회대상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감정적 기분, 그리고 贊反의 행동경향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sup>6)</sup>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개인 내적인 성향으로 정의

3) James J. Best(1973), *Public Opinion*, the Dorsey Press, pp.5~11.

4) Milton Rokeach(1968~1969), “The Role of Values in Public Opin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2, p.550.

5) 金在衡(1989), “社會科 價値教育論,” 「韓國社會科教育學概論」, 韓國社會科教育研究會 編, 教育科學社, p.246.

6) D.Krech, et al(1962), *Individual in Society*, McGraw-Hill, p.102.

할 수 있다. 셰리프(Sheriff·M)와 칸트릴(Cantril·H)은 태도를 “어떠한 사태에 대한 개체의 고유한 잠재적 반응경향”이라고 정의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sup>7)</sup>

- ①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
- ②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수성
- ③ 항상 대상에 대해서 가치판단이 따른다.
- ④ 태도는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나 비교적 지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 ⑤ 언어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

태도의 대상은 항상 어떤 대상물이 있으며 호의성 정도는 바로 태도의 強度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태도란 전형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하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이며 감정과 어떤 대상간의 결합은 학습되며, 일단 학습되고 나면 그 대상이 존재하게 되며 똑 같은 감정을 일관성있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대상에 대하여 가치나 好惡의 생각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학습된 성향으로서의 의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는 ①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준거기준의 변화 ② 동기나 정서의 강도에 따라 자아구조의 변화 ③ 의사소통의 내용과 선전 ④ 집단의 효과 ⑤ 역할의 변화 ⑥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 등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태도는 개인의 일시적 경험이나 반응에 의해서 크게 변화되는 일은 적고, 내적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면서 존속되어 개인 행동의 준거기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sup>8)</sup>

태도 형성은 ① 소속 집단의 성원들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얻게 되는 사회적 경로 ② 새로운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과거에 습득한 가치관과 연결시켜 새 상황

7) 培英社(1965), 「教育心理學辭典」, p.350.

8) 鄭永潤·尹鍾健(1986), “大學生的 意識構造에 관한 豫備的 研究,” 「論文集」, 第19輯, 韓國外國語大學校, pp.768~769.

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인지적 경로 ③ 직접 체험하여 태도를 형성하는 조건화 ④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행동의 태도를 이끌어 가는 것 등이다.<sup>9)</sup> 따라서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태도 변화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길 밖에 없다.

이와 같이 태도의 諸 定義나 변화 및 형성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학자들의 정치태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최초로 심리학과 정치학의 만남은 아이젠크(H.J. Eysenk)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현대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정치태도와 같은 기질적 성격을 분석하여 모든 정치행위는 정치태도를 통하여 중개된다고 하였다. 또한 태도와 습관은 중추신경계에 의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sup>10)</sup> 이스튼(Easton)과 헤스(Hess)는 정치태도를 개인이 학습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치적 대상을 정치공동체(Community), 정부(Regime), 정치체(Authorities)로 구분하여 이들에 따른 정치적 정향의 유형은 지식, 가치, 태도라 하고 있다.<sup>11)</sup>

캠벨(D.T. Compbell)은 정치태도를 “정치대상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잠재적 정향”<sup>12)</sup>이라고 하였고, 마시알라스(Massialas)는 정치태도를 정치문화의 한 양태라 보고 있다. 즉 정치문화는 정치적 구조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정치질서에 대한 인지적 정향과 개인의 태도와 느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sup>13)</sup>

하이만(Hyman)이 정리한 정치태도의 종류를 보면 전쟁에 대한 태도, 전체주의, 국유제에 대한 태도,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 정당에 대한 태도, 국제문제에 대한 태

9) 上揭書, p.769.

10) Hans J. Eysenck(1954), *The Psychology of Politics*, Routledge and Kegan Paul, p.265.

11) 李廷植(1988), “韓國國民學生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圓光大學校 大學院, p.20.

12) D.T. Compbell(1950),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47, pp.15~38.

13) Byron G. Massialas(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p.9.

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14)</sup> 그 밖에도 연구자들에 따라서 정치효능감, 정당 동일시, 정치신뢰감, 자민족 중심주의, 정치적 흥미, 냉소감, 시민적 관용, 시민의무감 등 심리학적·사회학적 배경을 갖는 무수한 개념을 차용해서 쓰고 있다.

한 국가의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가치관, 태도, 심리상태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그 국가의 정치를 형성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본 연구에서는 정치태도를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정의하려고 한다.

#### 1) 市民義務感(sense of citizen duty)

시민의무감은 한 개인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 해야 할 법적 의무감으로 이는 개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정치제도 사이의 호혜적인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정치제도에 대한 개인의 보조 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선거 때에 투표를 꼭 해야 한다거나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때로는 반대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 政治效能感(political efficacy)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정부의 기능 및 정치과정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느끼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시민 각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자신감이며, 효능감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

14) Herbert H Hyman(1965), *Political Socialization*, The Free Press, pp.53~54.

결정에 영향을 주는 힘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효능감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또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감각도를 말한다. 즉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각자의 감각도를 측정해 보는 것으로 자기와 정치와의 거리감을 측정할 수 있다. 정치적 관심이 개인의 정치의식 지적 측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적, 동기적 측면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이스튼(Easton)과 데니스(Dennis)는 정치효능감을 자신들이 시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정치효능의 요소를 ①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능력감 ② 개인의 요구에 정부가 응한다는 신념 ③ 정부의 이해가능성에 대한 생각 ④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이용가능성 ⑤ 정부에 순응해야 한다는 숙명론에 대한 저항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6)</sup> 물러(Muller)는 이스튼과 데니스의 분류에 따라 정치효능감을 세 개의 기본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sup>17)</sup> 첫째, 정부가 시민의 영향에 대응하리라는 일반적인 신념, 둘째, 효과적인 정치형태에 필요한 기능, 셋째, 중요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심리적 성향이나 믿음으로, 이러한 정치효능감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면 세 차원의相合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政治信賴感 (political trust)

정치신뢰감은 정부나 정치지도자 및 공무원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감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상, 공무원의 공적인 노력에 대한 느낌 및 정부

15) 威義英(1972), "政治意識의 民主化," 「社會科學論集」, 第5輯,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p.75.

16) David Easton and Jack Dennis(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1, pp.25~38.

17) E. Muller(1970), "Cross-National Dimensions of Political Competence," in *A. P. S. R.*, 64, Sept., pp.792~793.

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나 평가적 자세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정치신뢰의 차원은 정치체제의 산출국면에 정치적 정향에 대한 믿음으로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정치적 투입과정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정부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생각한다.

캠손(Camson)은 정치신뢰는 기본적 형태의 정치적 정향으로서 정치제도가 생산한 생산물의 質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기대라고 하였고,<sup>19)</sup> 이스튼(Easton)은 정치신뢰는 호의적인 태도나 친절의 저장소들 형성하는 일종의 확산된 지지(diffuse support)로 보았으며,<sup>20)</sup> 알몬드(Almond)와 버바(Verba)는 정치신뢰를 산출효과 또는 정부관리들의 處置에 대한 국민이 가지는 기대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sup>21)</sup>

따라서 정치신뢰는 정부활동 전반에 걸친 국민의 감정이나 믿음으로 이는 정치체도의 존속,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4) 政治參與感(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참여감은 정치에 관한 토론, 정치적 집회, 시위운동과 같은 정치적 행위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Nie)와 버바(Verba)는 정치참여란 정치지도자나 시민들이 정치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의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합리적인 태도라고

18) S.R.Lyons(1970),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Ghetto-Children: Efficacy and Cynicism," *The Journal of Politics*, Vol.32, The Sout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291.

19) W.A.Camson(1971), "Political Trust and its Ramifications," *Social, Psychology and Political Behavior*, (ed). G. Aberian and J.Soule, Chareless E. Merrill Co., p.41.

20) David Easton(1973),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John Wiley and Sons, Inc, p.273.

21) G.A.Almond and S. Verba(1965), *The Civic Culture*, Little Brown and Company, p.62.

하였고,<sup>22)</sup> 밀브레드(Milbrath)는 정치참여란 정치 구성원들 상호간에 交互的인 關係를 통하여 서로의 공존을 위해서 선택, 표명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sup>23)</sup> 이는 결국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이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는 투표참가나 정당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도 있고 정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참여도 있다. 개인들은 정치참여로 정부의 일에 실제로 참여하고 정부에서 무엇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자신들의 견해도 제시한다. 따라서 정치참여는 정치지도자나 공무원들에게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유권자에게는 봉사정신을 불러 일으킨다.<sup>24)</sup> 시민의 정치참여는 민주정치 발전의 원동력으로 각 개인은 정치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며 폭 넓은 사고를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 2. 政治社會化와 政治態度

한 국가의 정치형태는 그 국가의 분위기, 태도, 가치체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듯이 정치에 관한 국민의 태도와 신념은 국가정치형태를 반영하며 형성한다. 한 인간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그 사회의 문화규범을 습득하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정치적 동물이므로 그 성장에 따라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정치생활에 관련되는 가치체계, 신념 및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된다.

정치사회화는 정치적 사태에 관한 인간지향적 설명으로 지금까지 정치사회화에

---

22) Norman H. Nie and Sidney Verba(1975), "Political Participation," *Handbooks of Political Science: Non Government Politics*, (ed.). F.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Addisonwesleg, p.1.

23) Lester W. Milbrath(1965),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the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Rand McNally, p.1.

24)李克燦(1987), 「政治學」, 法文社, p.206. 참조.

대해서 정립된 개념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정치사회화는 정치문화에로의引入過程이다. 정치사회화의 최종생산물은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 다양한 역할, 역할 수행자의 충원을 의미하며 그것은 정치체제에로의 지지, 요구의 투입과 권위적 결정에 대한 知識, 情意, 價値를 포함한다.<sup>25)</sup>
- . 청소년들을 한 사회의 정치문화 속으로 유도적용시키는 과정이며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과정이다.<sup>26)</sup>
- . 현존하고 있는 정치체제에 의해서 채택되고 실행되는 규범, 태도, 행태의 점진적인 학습이다.<sup>27)</sup>
- . 행동과 가치의 안정된 양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며 사회에서 이미 설정된 성인의 역할을 젊은이들이 따르도록 하는 과정이다.<sup>28)</sup>
- . 정치사회화는 정치과정을 지배하는 규범, 태도, 신념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sup>29)</sup>
- . 정치체제의 새로운 세대가 정치문화를 통하여 정치태도와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이다.<sup>30)</sup>



- 25) G.A.Almond and J.S.Coleman(1967),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7~28.
- 26) Byron G. Massialas(ed.) (1972), *Political Youth: Traditional School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rentice-Hall, p.37.
- 27) Robert Sigel(1965), "Assumptions about the Learning of Political Values," *The Annals*, 361(September), p.2.
- 28) Robert D.Hess(1968), "Political Socialization in the School," *Harvard Education Review*, Vol.38, p.528.
- 29) Emil J. Haller(1970),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Children and the Structure of the Elementary School," *Interchange*, Vol.1, No.3, p.46.
- 30) 李鍾烈(1977), "高等學校 學生의 政治態度發達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p.18.

○.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회적 태도와 성격특성의 획득과 같은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계획적이건 비계획적이건, 형식적이건 비형식적이건 간에 모든 정치적 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up>31)</sup>

○. 개인이 정치적 정향과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발전과정이다.<sup>32)</sup>

○. 많은 매개체를 통하여 개인이 정치적으로 관련있는 태도성향과 행동유형을 학습해가는 과정이다.<sup>33)</sup>

○. 개인수준에서 한 개인이 그의 특수한 정치정향, 즉 정치세계에 관한 지식, 느낌, 평가를 습득하는 단순한 과정이다.<sup>34)</sup>

○. 개개인이 정치에 대한 인식, 느낌 및 정치능력의 자각을 포함하며, 정치체계 및 정치체계내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습득하여 가는 과정이다.<sup>35)</sup>

○. 개인적 수준에서는 개인이 여러 사회화의 매체를 통하여 정치체계의 諸規準이나 價値를 습득하는 과정이다.<sup>36)</sup>

이상의 개념 정의를 통해 볼 때, 정치사회화는 대체로 정치문화에로의 引入過程과 정치문화를 전수하는 과정으로 파악되는 '文化傳授'라는 체제수준과, 한 개인이 특수한 정치정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치적 자아 형성'이라는 개인수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사회화는 개인이 정치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

31) Fred I. Greenstein(1968), "Political Socializa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4, Macmillan Co., p.551.

32) David Easton and Jack Dennis (1969),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McGraw-Hill, p.7.

33) Kenneth P. Langton(1969), *Political Soc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5.

34) R.E.Dawson *et al*(1977),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 鄭世九 譯(1981), 法文社, p.39.

35) James S. Coleman (1965),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8.

36) 金在泳(1981),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韓國外國語大學 大學院, p.12.

그 사회의 體制規準 및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sup>37)</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슈발즈(D·C·Schwartz)는 정치사회화의 연구 방향을 ① 개인의 역동성 ② 태도학습의 과정 중시 ③ 사회화 매체 범위로 확대 제시하였는데,<sup>38)</sup> 이는 개인의 정치태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하에서 습득되는나를 중시하고 있다. 프로만(Froman Jr.)은 정치태도를 개인의 환경(사회화 매체)과 사회화 결과로서 퍼스널리티의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고,<sup>39)</sup> 그린스타인(Greenstein)은 시민 혹은 신민의 역할에 관련된 학습에 따라 ① 시민적 역할에 관련된 학습 ② 신민적 역할에 관련된 학습 ③ 특정의 정치적 역할 수행 및 이에 대한 충원에 관련된 학습으로 분류하고 있다.<sup>40)</sup>

개인이 정치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파이(Pye)는 사회화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sup>41)</sup> 첫째는 기본적 사회화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아동들이 사회의 특수한 문화에 유도되고 사회의 한 성원이 되도록 기본적인 인격과 정치태도 및 가치, 기능과 역할관련성의 유형 등 사회와 문화의 모든 면을 학습하게 되는 과정이다. 둘째는 정치사회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은 정치세계를 알게 되고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하게 된다. 첫 단계에서는 개인이 일반문화에 사회화되지만 정치사회화 단계에서는 정치문화에 사회화된다. 이 단계에서는 명시적인 지각, 인식, 학습에 의하여 더욱 영향을 받는다. 셋째 단계는 정치적 충원과정인데 여기서

37) 金在泳(1982), 「政治社會化論」, 大旺社, p.24.

38) D.C. Schwartz and S.K. Schwartz(1975), *New Direction in Political Socialization*, The Free Press, pp.6~7.

39) Lewis A. Froman Jr.(1961), "Personality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Journal of Politics*, Vol.23, pp.341~352.

40) Fred I. Greenstein(1968), *op. cit.*, pp.552~553.

41) Lucian W. Pye(1962),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Building," Yale University Press, pp.44~48.

는 개인은 수동적인 시민이 아닌 정치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정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정치사회화가 성공하려면 개인이 정치적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정치세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태도를 가진 인간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사회화를 정치문화의 학습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일정한 정치적 정향이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사회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개인은 정치적 자아를 획득하게 되는데, 정치적 자아는 개인의 정치에 대한 태도, 감정, 신념, 인식의 총체라 볼 수 있다. 정치적 자아의 정향은 민족주의, 애국심, 충성심,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태도와 평가, 정치세계에서의 자아상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정향이나 일련의 태도는 일정한 연령에서 고정화되어 정치사회화 과정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의 정치태도 습득은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일생동안 경험하며 생긴다. 정치사회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정치태도 습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간주되고 있다.<sup>42)</sup>

아동기의 정치사회화는 정치체제 이외의 다른 사회체제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재적인 정치사회화라 하며, 청소년기에는 명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적인 정치사회화라 한다. 아동기의 잠재적인 정치사회화는 정치적 지식의 결여로 성인의 정치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적 권위나 정치인을 이상화시킨다. 이에 대해 청소년기의 명시적인 정치사회화는 정치적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정치적 자아의 형성으로 아동기의 정서적이며 이상화된 정치적 이미지에서 깨어나 더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정치태도를 갖게 된다.

아동기에는 기본적인 정치적 정향이 습득되지만 이 때의 경험은 청년기 및 성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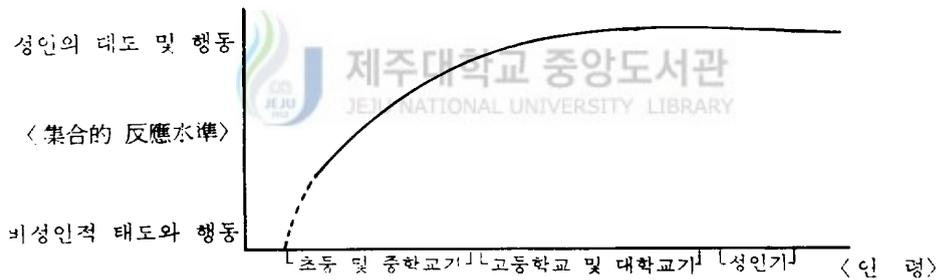
---

42) H.H. Hyman (1965), *op. cit.*, pp.17~20.

에도 지속된다. 정치태도의 발달은 청소년 후기에 대체로 나타나는 데 이 기간에는 청소년 전기에서 이미 설정된 정치적 유형을 내면화하고 結晶시키며 개인의 정치적 자아를 아주 잘 설정하고 발전시킨다. 이러한 정치태도의 발달은 추상적인 정치현상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며 사고력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스튼(Easton)에 의하면 아이들은 11세에서 12세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정치적 정향을 가지게 되고 14세쯤 되면 확고해지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는 별로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확고한 정치적 정향을 갖고 정치기구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세련된 견해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sup>43)</sup> 대체적으로 모든 정치태도의 기본적인 것은 국민학교 때부터의 학습의 누적적인 효과가 고등학교 시기에 이미 정점에 도달한 시기로 정치태도는 고착화되기 시작한다.

민주주의가 원활히 운용되려면 시민들이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각 개인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인 정치태도와 행위유형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태도의 발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정치태도의 가상적 발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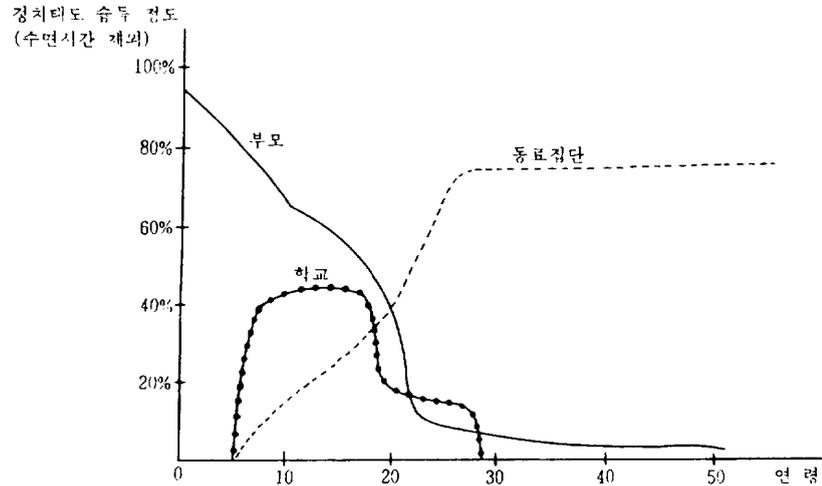


자료 : M.K.Jennings and R.G. Niemi(1968),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Values from Parent to Chil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2, p.466.

43) David Easton(1966), *The Role Elementary School in Political Socialization*, McGraw-Hill, p.258.

정치태도 발달에 정치사회화 기관인 가정, 학교, 동료집단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사회화 기관에 의한 정치태도의 습득과 발달정도를 제시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 2 정치사회화 담당기관에 의한 정치태도 습득 정도



자료 : 金京雄 編著(1982), 「政治教育論」, 裕豊出版社, p.148.

가정은 사회의 모체로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형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화 기관이다. 사랑과 온정은 인간 발달의 전제 조건이며 가족간의 상호 인간관계는 인성과 정치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간의 강한 감정적 애착은 가족 성원에게 안정감과 신뢰심을 심어 주어 올바른 정치태도를 갖게 하는 근원이 된다. 가정은 명시적이고 의도적인 정치사회화나 정치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며 인간적 정이 가장 짙은 곳으로 민주시민이 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정향이나 태도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는 평생동안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 된다. 가정은 그 자체가 정치체제의 한 축소판으로 정치태도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정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역할이 다소 제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은 가족간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생의 정치태도나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정향을 습득한다.

한국에서는 사회의 전통적인 사회관계 및 인간관계의 유형으로 정치태도 습득에서 가정의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태도 형성에 있어 가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욕구만족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와 동일시 경향이 있어서 부모의 정치태도를 그대로 수용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정치태도 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은 부모가 담당한다고 하는데 가정분위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가족구조 등이 정치태도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정도와 관련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의 문화를 결정지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부모의 의식구조, 행동방식 및 자녀교육방식이 자녀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가정의 좌표에 따라 개인의 정치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

둘째, 부모 상호간의 관계가 자녀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준다. 가정에서 힘의 구조나 부모의 정치적 정향의 동질성 및 이질성은 자녀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준다.

셋째, 가족 중에서 권위자에 대한 태도는 정치와의 관계에서 정치지도자와의 동일시에 반영된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덜 권위주의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정치태도를 갖게 되어 지배와 복종을 강조하게 되며, 보수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넷째, 같은 국가내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속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주자의 정치태도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정치태도는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어린이는 아버지를 보다 강력하게 여기고 동일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 가정의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1차적으로 정치지식과 정보를 접촉하게 되어 학교가 정치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가정내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자아를 형성

하여 이룩된 정치태도와 행태는 장차 사회화 경험의 기초가 된다. 가정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정치태도를 학교가 조장하기도 하나 새로운 정치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정만으로 민주적인 정치태도 형성에 불충분하므로 의도적 교육기관인 학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학교는 성격상 의도적 교육기관이고 제도적으로 통제되기 쉽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사회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정치체제와 교육정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학교는 가정이나 동료집단보다 더 명시적인 정치태도를 형성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의 영향력을 더 많이 인식하고 또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정치적 능력도 높다고 하는데, 알몬드(Almond)와 버바(Verba)는 교육은 정치태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제한된 교육을 받은 사람과는 정치적 행위가 다르다고 강조한다.<sup>44)</sup> 따라서 올바른 정치태도의 형성을 위해서는 오늘의 정치문화속에서 사회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위적인 노력으로 정치사회화 과정의 민주화를 기하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명시적인 정치사회화의 기능은 의도적인 정치태도나 행태적 특성을 나타내도록 교과과정이나 교과서에 특수한 내용을 포함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sup>45)</sup> 학교는 교과과정, 교과서 등의 명시적인 정치사회화와 과외활동,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등의 학교문화에 의해 학생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학교가 의도적이고 계획된 수업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정치태도를 가르치며 동시에 학교 분위기에서 무의식적인 경험을 통하여 태도를 습득하거나 발전시키게 된다. 학교 교육은 청소년의 사고형태나 가치판단의 기준을 형성하거나 정치적 지식이나 인식을 높이고 참여지향적인 민주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또 학교는 정치체제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강화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

44) G.A. Almond and S.Verba(1965), *op. cit.*, pp.315~316.

45) 鄭志善(1982), "學生的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p.16.

정치태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내의 요인으로서 첫째, 사회과 교과서는 정치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敎授資料로서 여기에는 민주적인 정치신념이 강조되며 낙관적 견해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 모든 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를 지지하는 정치태도와 성향을 갖도록 하는 의도적인 것이다. 둘째, 교사는 전체 교육제도가 의도하는 바를 학생들과 직·간접의 접촉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치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태도와 행위유형을 습득하기 때문에 교사가 정치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어느 정도 학생에게 전달되는가는 학생의 정치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교사는 또 학급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정치태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교사의 민주적인 정치태도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정치태도와 능력을 기르며, 민주적인 교실환경에서의 경험은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가진 시민을 육성하게 된다고 한다. 셋째, 학생들의 출신이나 사회계층에 의한 분위기가 정치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동질적인 사회계층의 학생들이 모인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특유한 사회적, 정치적인 규범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異質的인 사회계층의 학생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하류층 학생들이 상류층의 정치규범으로 再社會化되어진다. 넷째, 학교문화나 환경이 정치태도나 정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학교와 학급경영, 학교구조, 교실학습, 의식생활, 교직원간의 관계가 민주적일 때 학생의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학교는 새로운 세대를 민주적인 생활방식으로 입문시키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정치문화를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는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지적 안목을 지니게 되고 정치태도를 가진 정치적 인간으로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학교는 민주적인 생활방식에 필요한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동료집단도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파슨즈(T.

Parsons)는 中等學校 時節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 매체는 동료집단이라고 한다.<sup>46)</sup> 청소년기의 동료집단에 나타난 정치사회화는 어린 시절의 기본적인 정치적 정향이나 태도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동료집단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환경과 가정교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동료집단을 통해서 개인의 정치태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동료집단을 통해서 학생들은 순수한 인간관계와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위한 수단 방법으로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어른 세계에서 직면하게 될 인간문제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한다. 동료집단은 평등관계에 입각한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집단이므로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료집단은 집단의 규칙이나 분위기 및 학생의 참여를 조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태도와 행위를 보강할 수 있고, 학교 교육이 동료집단의 가치 및 태도와 일치하여 이루어 질 경우 더욱 큰 긍정적인 정치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 동료집단은 사회계층의 同質性 有無에 따라 그들이 이미 습득한 정치태도나 행위양식을 강화 또는 再社會化해 가게 된다. 동질적인 경우에는 정치태도가 보강되고, 이질적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정치태도를 갖게 되거나 또는 부정적인 정치태도를 갖게 되거나 지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동료집단의 환경적 분위기에 따라 정치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이는 동료집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개인은 집단의 가치와 태도에 집착하거나 쉽게 동화된다.

### 3. 政治文化와 政治態度

---

46) Talcott Parsons(1959). "The School Class as a Socialization, Some of its Function in America Society," *Harvard Education Review*, X X IX, pp.297~318.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 개념이 정치학 분야에 도입된 것은 1956년 알몬드(Almond)의 「比較政治體制(Comparative Political System)」<sup>47)</sup>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정치문화란 정치와 문화의 합성어이므로 문화의 개념이 밝혀지면 정치문화의 개념도 명백해 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주어진 자연조건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와 그러한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얻어진 성과를 말한다.<sup>48)</sup> 따라서 어느 사회이건 그 집단의 공통된 생활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정치문화란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문화속에서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나 태도 및 행위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개인이 가진 정치적 정향 내지 성향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정치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정치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람은 공통된 인간성으로 어떠한 감정적 충동, 지적 능력, 도덕적 정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다소 변경시켜 가면서 교육과 모방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다. 이것을 감정적 태도, 가치 및 신념이라고 하며 사회의 문화는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치문화는 사회의 一般文化의 下位文化로서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 태도, 가치, 신념으로써 구성된다.<sup>49)</sup>

○. 정치문화란 정치과정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며 또한 정치체제내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전제와 규칙을 부여하는 태도, 信條, 心淸의 집합인데, 그것은 또한 정치체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 규범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문화란 것은 단지 정치체제의 전면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또한 그 체제 구성원의

47) G.A. Almond(1965), "Comparative Political System," *The Journal of Politics*, Vol.18, No.3, August, pp.391~409.

48) 金宇泰(1986), 「政治學」, 螢雪出版社, p.145.

49) Samuel H. Beer(1958),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Patterns of Government*, Samuel H. Beer and Adam B. Ulam, eds., Random, p.32.

생활사를 통해서 생겨진 것이므로, 공적인 事象과 사적인 경험에 똑 같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sup>50)</sup>

○. 일정시기에 있어 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일련의 태도, 신념, 감정의 경향이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적 활동의 진행과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sup>51)</sup>

○. 정치문화는 정치적 상황속에서의 경험적 신념체계, 표현적 상징체계, 가치체계들로 구성되며 정치에 대한 주관적인 정향을 제공하는 것이다.<sup>52)</sup>

○. 정치문화를 정치에 대한 인식과 정열과 태도의 총화로서 즉 사회구성원의 개인에 의하여 획득되는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의 복합적 성격이다.<sup>53)</sup>

○. 어떤든 정치문화는 정치체계가 작용하는 범위내에서 감정적이고 태도에 나타나는 환경으로 간략히 간주할 수 있으며, 정치문화란 정치적 대상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전반적 정향의 전면적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문화는 정치체제나 전체문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회의 광범위한 문화 중의 한 부분일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전체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하위문화이다.<sup>54)</sup>

○. 정치체제의 心理的 次元으로서의 정치문화는 전체 구성원들에 의해 통용되고 있는 태도, 신념, 가치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문화는 각 정치체제의 문화, 역사, 변동의 속도 등 諸要素에 따라 다양하다.<sup>55)</sup>

50) Lucian W. Pye (1968), "Political Culture,"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2, The Macmillan Co. and the Free Press, p.218.

51) G.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1978),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Little Brown and Company, p.25.

52) Lucian W. Pye and Sidney Verba (1965),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513.

53) H.V. Wiseman (1966), *Political Systems*, Routledge, p.21.

54) 徐載文 (1983), "政治文化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19輯, 公州教育大學, p.29.

55) 金忠男 (1970), "政治社會化에 관한 一考,"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7.

○ 정치문화는 정치일반에 대한 사고와 그 방식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행동양식을 총괄한다. 즉 정치문화는 정치적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규정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 그리고 가치체계 등으로 구성한다. 정치문화는 정치적 행동의 주관적인 정향을 제시한다. 정치문화는 정치제도의 유형에 대한 신념의 체계를 의미하는 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생각하고, 믿고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sup>56)</sup>

○ 정치현상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 가치, 규범, 태도 및 행위양식을 총칭한다.<sup>57)</sup>

○ 한 국가의 정치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향의 유형의 특수한 분배이다. 정향은 대상과 관계의 내면화된 것이다.<sup>58)</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문화란 정치체제의 구성원이 정치에 대하여 갖는 태도 및 정향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각 개인의 정치태도를 결정지우는 것이 정치문화라고 한다면 정치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습득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민주정치가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인 정치태도의 습득과 발달은 곧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발달과 직결되며 이러한 민주적인 정치문화는 교육을 통하여 정착되고 발달되며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는 교육을 통해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올바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문화 속에서 결정된 정치태도는 큰 변화없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간다고 할 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는 곧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토착화와 민주화가 필요하며 이에 알맞은 정치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민

56) 威義英(1972), 前掲書, p.63.

57) 朴興壽(1980), "韓國人の民主主義受容能力," 中央 5월호, p.119.

58) G.A. Almond and S. Verba(1965), *op. cit.*, pp.14~15.

주정치체도와 화합할 수 있는 참여지향적인 정치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가진 민주 시민이 요구된다.

정치문화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정치태도, 즉 정치에 대한 가치와 믿음 또는 감정적 태도와 행동양식이 지배적인 문화유형으로 집약되는 것이다.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그 구성원들의 정치태도에 의해 그 체제가 좌우되겠지만 특히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개개인의 정치태도가 더욱 결정적이므로 정치문화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 각 개인을 어린 시절부터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지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정치사회화 과정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정치문화가 유지, 변형,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치문화란 정치와 관련된 일반문화의 하위문화로 정치에 대한 정치체제 구성원이 갖는 태도 및 정향의 유형이라면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의 정치문화를 전수해주고 새로운 세대는 기존의 정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정치사회화라 할 때 그 사회의 정치문화를 유지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문화는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치사회화의 결과로서 정치문화가 형성 또는 변화하는 것이다. 정치태도의 형성과 변화는 정치문화 이외의 타요인이나 다른 정치문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산업화로 인해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타지역의 정치문화와 접촉이 빈번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문화는 다른 정치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될 것이며, 한 국가안에서도 다른 사회계층의 정치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정치문화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문화는 變形을 하게 된다. 한 나라의 정치문화가 여러 차례의 정치적 변화 위에서 유지, 발전해 갈 때 정치문화는 적용과 전수라는 소극적 개념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치문화의 변형과 창조라는 적극적 개념까지 발전할 것이다. 즉 체제 유지와 적용도 정치태도를 전수시키는 데는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는 더욱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정치문화 개발에 실패한 국가는 퇴조를 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치문화의 유지와 변형 또는 창조의 세 기능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 민주화 정도, 그 사회의 발전수준,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 등에 따라 다르다.

정치문화를 정치체제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정치적 정향이나 태도라고 한다면, 알몬드(Almond)와 버바(Verba)가 제시하는 정치적 정향의 구성요소는 (1) 認知的 定向 :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체제에 대해서 갖는 지식과 인식, (2) 感情的 定向 : 정치체제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 (3) 評價的 定向 : 정치체제에 대한 판단과 의견으로 정치문화는 그 나라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sup>59)</sup> 또한 알몬드(Almond)와 버바(Verba)는 정치적 정향을 정치대상에 따라 정치문화를 유형화하였다.<sup>60)</sup>

	일반적 대상인 체	투입 대상	산출 대상	행동적 참여자로서의 자신
지방적	0	0	0	0
신민적	1	0	1	0
참여적	1	1	1	1

#### 1) 地方型 政治文化 (parochial political culture)

4종류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치적 정향의 빈도가 높게 가까운 정치문화를 말한다. 이 사회에서는 특수한 정치적 역할이 없고 종족집단을 벗어나서 광범위한 정치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체제에 의해 시작되는 변화에 관한 기대감이 결여되어 있고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된 상태의 정치문화유형을 말하며 단순한 전통사회가 여기에 속한다.

59) G.A. Almond and S. Verba(1965), *op. cit.*, p.15.

60) *Ibid.*, p.15.

## 2) 臣民型 政治文化(subject political culture)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체계인 분화된 정치체계와 그 산출국면에 대한 정향의 빈도는 높지만 투입대상과 행동적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향은 需에 이르는 정치문화유형을 말한다. 전문 분화된 정부 권위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감정적 好惡의 정향도 가져 긍지를 느끼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며 그 권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는 수동적이며 행정적이고 하향적인 산출국면에 정향되어 있다. 여기에는 인지적이라기 보다 감정적이며 중앙집권적 정부가 속한다.

## 3) 參與型 政治文化(participant political culture)

전체의 체계만이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 구조와 과정에 이르기까지 즉 정치체계의 투입, 산출 양 국면에 모두 정향이 되어 있는 정치문화를 말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臣民의 위치에서 市民의 위치로 변화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 산업사회에 상응하는 정치문화로서 사회구성원은 정치체계가 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의사를 정치체계에 반영시킬 것인가를 알고 있다.

페이지(Paige)는 정치체계의 투입과정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효능이라 하고, 산출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적 자세나 신념을 신뢰라 보고, 집단의 지배적인 정치태도를 그림3과 같이 분류하였다.<sup>61)</sup>

---

61) Jeffery M. Paige(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 pp.811~813.

그림3 정치태도의 유형

	← 높은 신뢰	政治信賴	낮은 신뢰 →
↑ 높은효능 政治效能	I. 忠誠의 政治態度 民主主義的		IV. 異意의 政治態度 不安定的
↓ 낮은효능	II. 從屬의 政治態度 傳 統 的		III. 疎外의 政治態度 全體主義的

(1) 忠誠의 政治態度

정치신뢰와 정치효능이 모두 높은 사람이 갖게 되는 정치태도를 말한다. 이들은 정부 또는 체제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현존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능동적인 지지자가 된다. 정치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갖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능동적이며,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으므로 행동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정부나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강제력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정치태도에 부응하는 것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충성의 정치태도를 가지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된다.

(2) 從屬의 政治態度

정치효능은 낮으나 정치신뢰는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태도이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고 믿고 있으나 구성원들의 요구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정부의 책임성 여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인은 順從的 政治態度를 가지며 정부의 성격은 전통적인 정치체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3) 疎外의 政治態度

정치효능과 정치신뢰가 모두 낮은 경우에 갖게 되는 정치태도이다. 여기 구성원들은 정치참여에도 능동적이지 못하며 현존하는 정치체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치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정치란 위험한 것이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 여기에서는 개인은 소외적인 정치태도를 가지며 정부는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 (4) 異意의 政治態度

정치효능은 높으나 정치신뢰는 낮은 사람들이 갖는 정치태도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다수인 정치체제는 불안정하기 쉽다. 정부를 믿을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경우에는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행동이 야기될 수 있다. 불신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보다 급진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정치적 자신감은 높으나 정치신뢰는 낮기 때문에 개인은 異意의 정치태도를 가지게 되며 정치체제는 불안정하게 나타난다.

## IV. 結果 및 論議

### 1. 領域別에 따른 政治態度

#### 1) 市民義務感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의 시민의무감에 대한 정치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투표 참여의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시민의무감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문항	N	M	SD	반 응 구 분 (%)					
				절대찬성	찬 성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반 대	절대반대	계
8	1124	4.26	0.81	10 (0.9)	23 (2.0)	128 (11.4)	468 (41.6)	495 (44.0)	100
9	1124	4.48	0.70	3 (0.3)	17 (1.5)	66 (5.9)	389 (34.6)	649 (57.7)	100
10	1124	4.68	0.61	5 (0.4)	12 (1.1)	18 (1.6)	272 (24.2)	817 (72.7)	100
11	1124	4.36	0.82	11 (1.0)	32 (2.8)	86 (7.7)	402 (35.8)	593 (52.8)	100

투표 참여의무에 대한 시민의 의무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 질 것 같이 생각될 때 투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항을 제시하

였는데, 그 반응결과는 '찬성'은 2.9%, '반대'에 85.6%의 반응결과를 나타내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에 관계없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 짝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반응결과가 '찬성'이 1.8%, '반대'가 92.3%를 나타내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형편을 잘 모르고 있어도 좋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의 반응결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1.5% '반대'에 96.9%를 나타내어 국민들은 나라의 정치형편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는 높은 정치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치를 맡아 하는 정치인이나 나라살림을 맡아 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3.8%, '반대'가 88.6%의 반응을 나타내어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2) 政治効能感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정치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가능성,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 개인의 정치효능감,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소유에 대한 효능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문항의 반응결과는 표5와 같다.

정치나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가능성 알아보기 위해서 "때때로 정치나 정부는 대단히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반응결과를 보면 '찬성'이 32.5%, '반대'가 44.0%,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23.5%를 보이고 있어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

표5 정치효능감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문항	N	M	SD	반 응 구 분 (%)					
				절대찬성	찬 성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반 대	절대반대	계
12	1124	3.20	1.16	71 (6.3)	294 (26.2)	264 (23.5)	333 (29.6)	162 (14.4)	100
13	1124	4.46	0.81	10 (0.9)	39 (3.5)	56 (5.0)	341 (30.3)	678 (60.3)	100
14	1124	3.62	1.03	23 (2.0)	145 (12.9)	314 (27.9)	397 (35.3)	245 (21.8)	100
15	1124	3.47	1.26	90 (8.0)	219 (19.5)	151 (13.4)	405 (36.0)	259 (23.0)	100

타나고 있다.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무엇이라 하든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날씨와 같아서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의 반응결과는 ‘찬성’이 4.4%, ‘반대’가 90.6%로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적극적인 정치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정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반응결과는 ‘찬성’이 14.9%, ‘반대’가 67.1%로 개인의 정치효능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의 소유에 대한 정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투표하는 일이다.”라고 문항을 제시한 반응결과는 ‘찬성’이 27.5%, ‘반대’가 59.0%로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

의 영향력 행사는 대체적으로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3) 政治信賴感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신뢰감에 대한 정치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政府施政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정부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믿음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정치신뢰감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문항	N	M	SD	반응구분 (%)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대단히 조금	전혀안함	계
16	1124	3.37	0.85	9 (0.8)	126 (11.2)	543 (48.3)	327 (29.1)	119 (10.6)	100
17	1124	3.83	0.88	16 (1.4)	36 (3.2)	341 (30.3)	456 (40.6)	275 (24.5)	100
18	1124	3.56	0.88	7 (0.6)	97 (8.5)	464 (41.3)	377 (33.5)	179 (15.9)	100
19	1124	3.32	0.85	17 (1.5)	133 (11.8)	555 (49.4)	315 (28.0)	104 (9.3)	100

政府施政의 정당성에 대한 정치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한 반응결과를 보면 '대단히 많이'가 0.8%, '많이'는 11.2%, '조금'이 48.3%, '대단히 조금'은 29.1%, '전혀 안함'이 10.6%로 政府施政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정치신뢰가 낮은 정치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정치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얼마나 믿을 수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의 반응결과는 ‘대단히 많이’가 1.4%, ‘많이’는 3.2%, ‘조금’이 30.3%, ‘대단히 조금’은 40.6%, ‘전혀 안함’이 24.5%로 부정적인 반응이 65.1%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지도자들이 청렴결백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정치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믿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한 반응결과는 ‘대단히 많이’가 0.6%, ‘많이’는 8.5%, ‘조금’이 41.3%, ‘대단히 조금’이 33.5%, ‘전혀 안함’이 15.9%로 부정적인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그 과정이 국민의 이익과 여론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라고 문항을 제시한 반응결과는 ‘대단히 많이’가 1.5%, ‘많이’는 11.8%, ‘조금’은 49.4%, ‘대단히 조금’이 28.0%, ‘전혀 안함’이 9.3%로 부정적인 정치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정치신뢰가 비교적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政治參與感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 관심 표명, 정치견해 차이로 인한 의견대립의 경험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표7과 같다.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친구들과 정치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정도 참가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

표7 정치참여감에 대한 전체 반응결과

문항	N	M	SD	반응구분 (%)					계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대단히 조금	전혀안함	
20	1124	3.17	1.01	50 (4.4)	217 (19.3)	473 (42.1)	260 (23.1)	124 (11.0)	100
21	1124	3.56	1.04	31 (2.8)	133 (11.8)	382 (34.0)	334 (29.7)	244 (21.7)	100
22	1124	2.81	0.90	66 (5.9)	343 (30.5)	497 (44.2)	178 (15.8)	40 (3.6)	100
23	1124	4.19	1.06	23 (2.0)	67 (6.0)	202 (18.0)	217 (19.3)	614 (54.7)	100

에 대한 반응결과 보면 '대단히 많이'가 4.4%, '많이'는 19.3%, '조금'은 42.1%, '대단히 조금'은 23.1%, '전혀 안함'이 11.0%로 정치문제에 대한 친구들과의 토론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분은 어른들과 얼마나 자주 정치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쭙어 보니까?"라는 문항의 반응결과는 '대단히 많이'가 2.8%, '많이'는 11.8%, '조금'은 34.0%, '대단히조금'은 29.7%, '전혀 안함'은 21.7%로 긍정적인 반응이 14.6%, 부정적인 반응이 51.4%를 나타내어 대단히 소극적인 정치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관심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등에서 세계의 정치형편이나 나라안의 정치형편에 대해 어느 정도 열심히 듣고 보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반응결과는 '대단히 많이'는 5.9%, '많이'가 30.5%, '조금'이 44.2%, '대단히 조금'은 15.8%, '전혀 안함'이 3.6%로 언론 매체를 통한 정치문제에도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전해 차이로 인한 의견충돌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로 인하여 친구들과 의견대립으로 다툰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반응결과를 보면 ‘대단히 많이’는 2.0%, ‘많이’가 6.0%, ‘조금’은 18.0%, ‘대단히 조금’은 19.3%, ‘전혀 안함’은 54.7%로 정당이나 정치인 선호도 문제를 갖고 친구들과 의견대립 경험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 74.0%를 보이고 있어,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 문제를 놓고 친구들과 의견대립 경험이 거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2. 背景變因別에 따른 政治態度

배경변인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분석은 평균(M)을 가지고 하였으며 시민의무감과 정치효능감은 평균점수가 중간점수보다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정치실패감과 정치참여감은 평균점수가 중간점수보다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각 정치태도를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중간점수는 12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 1) 性別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정치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표8과 같다.

표8에서 보면 시민의무감은 남학생(M=17.63)보다 여학생(M=17.93)이 선거때에 투표 참여의무나 법률과 규칙 준수 등에서 시민의무감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효능감에서도 남학생(M=14.53)보다 여학생(M=14.94)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표8 性別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정치태도	성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T	P
시민 의무감	남	553	17.63	2.03	집단간	26.01	1	26.01	-2.54	0.011*
	여	571	17.93	1.99	집단내	4532.71	1122	4.04		
					전체	4558.72	1123			
정치 효능감	남	553	14.53	2.68	집단간	48.60	1	48.60	-2.65	0.008**
	여	571	14.94	2.58	집단내	7770.02	1122	6.93		
					전체	7818.62	1123			
정치 신뢰감	남	553	13.90	2.85	집단간	35.43	1	35.43	-2.15	0.031*
	여	571	14.26	2.68	집단내	8562.22	1122	7.63		
					전체	8597.65	1123			
정치 참여감	남	553	13.95	3.01	집단간	55.18	1	55.18	2.49	0.013*
	여	571	13.51	2.88	집단내	9676.26	1122	8.62		
					전체	9731.43	1123			

\* p<0.05    \*\* p<0.01

믿는 것이 남학생보다 여학생 반응이 크며 정치효능감은 p<0.01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신뢰감 또한 p<0.05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 이면서 여학생(M=14.26)보다 남학생(M=13.90)이 약간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여 정부지도자나 공무원에 대한 청렴결백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유일하게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 ( $M=13.51$ )이 남학생 ( $M=13.95$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관심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정치태도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체계의 투입과정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효능과 산출과정에 대한 평가나 신념을 정치신뢰라 본다면, 정치효능감은 평균점수가 중간점수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정치신뢰감은 평균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이 되므로 정치효능감의 평균점수 (14.74)와 정치신뢰감의 평균점수 (14.08)로 보아서는 異意의 정치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태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정치에 관심이 더 많고 적극적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비교적 反政府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 2) 學年別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학년에 따른 정치태도의 발달은 표9를 보면 알 수 있다.

표9에 의하면 시민의무감은 중학교 3학년 ( $M=17.71$ ), 2학년 ( $M=17.58$ ), 1학년 ( $M=17.34$ )순으로 중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민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 해야 할 법적 의무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1학년 ( $M=18.13$ ), 2학년 ( $M=18.04$ ), 3학년 ( $M=17.85$ )순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거시의 투표나 법률 및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의무감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민의무감은 고1 ( $M=18.13$ )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민의 법적 의무감이 높게 나타나지만 고2 ( $M=18.04$ ), 고3 ( $M=17.85$ )으로 갈수록 시민의무감이 낮아지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중학생은 중1 ( $M=15.04$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중3 ( $M=14.85$ ), 중2 ( $M=14.73$ )순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없으며, 고등학

표9 학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정치태도	학 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 량 추정치	F	P
시 민 의무감	중 1	178	17.34	2.40	집단간	79.86	5	15.97	3.99	0.0014**
	2	182	17.58	2.09						
	3	189	17.71	1.89						
	고 1	191	18.13	1.91	집단내	4478.86	1118	4.01		
	2	191	18.04	1.76	전 체	4558.73	1123			
	3	193	17.85	1.94						
정 치 효능감	중 1	178	15.04	2.60	집단간	33.84	5	6.77	0.97	0.4338
	2	182	14.73	2.59						
	3	189	14.85	2.68						
	고 1	191	14.49	2.59	집단내	7784.79	1118	6.96		
	2	191	14.60	2.68	전 체	7818.62	1123			
	3	193	14.76	2.70						
정 치 신뢰감	중 1	178	13.17	3.06	집단간	340.45	5	68.09	9.22	0.0000***
	2	182	13.70	2.90						
	3	189	13.79	2.86						
	고 1	191	14.41	2.55	집단내	8257.17	1118	7.39		
	2	191	14.55	2.33	전 체	8597.62	1123			
	3	193	14.76	2.56						
정 치 참여감	중 1	178	13.50	2.86	집단간	117.85	5	23.57	2.73	0.0184*
	2	182	14.19	3.15						
	3	189	14.06	2.92						
	고 1	191	13.68	2.65	집단내	9648.20	1118	8.63		
	2	191	13.71	2.70	전 체	9766.05	1123			
	3	193	13.23	3.30						

\*P<0.05    \*\*P<0.01    \*\*\*P<0.001

생들은 고3(M=14.76), 고2(M=14.60), 고1(M=14.49)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정치효능을 높게 나타내어 시민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의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중학생은 중1(M=13.17), 중2(M=13.70), 중3(M=13.79) 순이며, 고등학생은 고1(M=14.41), 고2(M=14.55), 고3(M=14.76)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지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불신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신뢰감은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참여감은 중1(M=13.50), 중3(M=14.06), 중2(M=14.19) 순이며, 고등학생은 고3(M=13.23), 고1(M=13.68), 고2(M=13.71)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고3(M=13.23)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중2(M=14.19) 때가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일관성이 없으며 특이하다고 하겠다.

학년별에 따른 전체 학생의 정치효능점수(14.75)와 정치신뢰점수(14.06)가 중간점수보다 높아서 異意의 정치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3)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부모의 연령별에 의한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태도의 차이는 표10과 같다.

표10에 의하면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정치태도가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 의무감에 있어서는 부모의 연령이 60대(M=18.06), 50대(M=17.94), 40대(M=17.73), 30대(M=17.67)의 순서로 부모의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선거시의 투표, 법률과 규칙 준수 등에서 시민이 국가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치효능감도 60대(M=14.94), 50대(M=14.78), 40대(M=14.72), 30대(M=14.70)의 순서로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표10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정치태도	연령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30대	57	17.67	2.13	집단간	11.45	3	3.82	0.94	0.4204
	40대	771	17.73	2.05						
	50대	278	17.94	1.90	집단내	4547.28	1120	4.06		
	60대	18	18.06	2.01	전체	4558.73	1123			
정치효능감	30대	57	14.70	2.71	집단간	1.54	3	0.51	0.07	0.9742
	40대	771	14.72	2.67						
	50대	278	14.78	2.55	집단내	7817.09	1120	6.98		
	60대	18	14.94	2.82	전체	7818.63	1123			
정치신뢰감	30대	57	13.84	3.23	집단간	23.12	3	7.71	1.01	0.3890
	40대	771	14.02	2.75						
	50대	278	14.32	2.75	집단내	8574.51	1120	7.66		
	60대	18	13.78	2.13	전체	8597.63	1123			
정치참여감	30대	57	13.56	2.90	집단간	18.23	3	6.08	0.70	0.5532
	40대	771	13.68	2.97						
	50대	278	13.85	2.90	집단내	9747.82	1120	8.70		
	60대	18	14.50	2.81	전체	9766.05	1123			

60대 (M=13.78), 30대 (M=13.84), 40대 (M=14.02), 50대 (M=14.32) 순으로 나타나서 부모 연령이 60대인 학생에게서 정부지도자나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고, 부모의 연령이 3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연령이 30대 (M=13.56), 40대 (M=13.68), 50대 (M=13.85), 60대 (M=14.50)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정치태도는 전체 학생의 정치효능점수 (14.79)와 정치신뢰 점수 (13.99)는 異意의 정치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4)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정치태도의 차이는 표11과 같다.

표11에 따르면 시민의무감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학생 (M=18.05)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 (M=17.87), 고졸인 학생 (M=17.76), 국졸이하인 학생 (M=17.35)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학생에게서 선거 때에 투표참여나 법률이나 규칙 준수 및 공무원에게 의사표시에 대한 시민의 의무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학생 (M=15.0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모 학력이 고졸인 학생 (M=14.74), 중졸인 학생 (M=14.67), 국졸이하인 학생 (M=14.45)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행사나 시민 각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부모의 학력이 국졸 이하인 학생 (M=13.85), 중졸인 학생 (M=14.03), 고졸인 학생 (M=14.11), 대졸 이상인 학생 (M=14.29)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나 정치지

표11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정치태도	학력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국졸이하	150	17.35	2.31	집단간	42.89	3	14.30	3.55	0.0142*
	중졸	286	17.87	1.94						
	고졸	514	17.76	2.02	집단내	4515.84	1120	40.3		
	대졸이상	174	18.05	1.80	전체	4558.74	1123			
정치효능감	국졸이하	150	14.45	2.77	집단간	34.54	3	11.51	1.66	0.1747
	중졸	286	14.67	2.59						
	고졸	514	14.74	2.64	집단내	7784.09	1120	6.95		
	대졸이상	174	15.09	2.57	전체	7818.62	1123			
정치신뢰감	국졸이하	150	13.85	2.68	집단간	16.19	3	5.56	0.73	0.5364
	중졸	286	14.03	2.83						
	고졸	514	14.11	2.77	집단내	8580.94	1120	7.66		
	대졸이상	174	14.29	2.73	전체	8597.63	1123			
정치참여감	국졸이하	150	14.14	3.04	집단간	79.52	3	26.51	3.07	0.0272*
	중졸	286	13.95	2.83						
	고졸	514	13.63	2.99	집단내	9686.54	1120	8.65		
	대졸이상	174	13.28	2.87	전체	9766.05	1123			

\* p<0.05

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부모를 둔 학생(M=13.2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인 부모를 둔 학생(M=13.63), 중졸인 부모를 둔 학생(M=13.95), 국졸 이하의 부모를 둔 학생(M=14.14)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어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학력별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전체 학생의 정치효능점수(14.74)와 정치신뢰점수(14.07)는 높게 나타나서 異意의 정치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5) 부모의 직업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부모의 직업별에 따른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태도 차이는 표12와 같다.

표12에서 보면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이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시민의무감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회사원인 학생(M=18.05)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시민으로서 국가나 정부에 대해 해야 할 본분에 관한 법적 의무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공무원·교사(M=17.90), 농수산업 등 1차산업(M=17.88), 상업·서비스업(M=17.71), 공업·건축업(M=17.54)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치효능감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업이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M=15.01)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의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서로는 회사원(M=14.84), 상업·서비스업(M=14.79), 농수산업(M=14.77), 공무원·교사(M=14.47)로 낮아지고 있다. 정치신뢰감에 있어서는 기타(M=13.72), 공무원·교사(M=13.80), 농수산업(M=14.07), 공업·건축업(M=14.08), 회사원(M=14.14), 상업·서비스업(M=14.33)순으로 반응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공무원·교사의 자녀일수록 정부

표12 부모의 직업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정치태도	직업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추정치	F	P
시민의무감	농수산업 등 1차산업	443	17.88	1.94	집단간	40.59	5	8.12	2.01	0.0749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14	17.54	2.10	집단내	4518.13	1118	4.04		
	상업·서비스업 등 3차산업	263	17.71	2.16	전체	4558.72	1123			
정치효능감	농수산업 등 1차산업	443	14.77	2.50	집단간	28.17	5	5.63	0.81	0.5436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14	15.01	2.97	집단내	7790.46	1118	6.97		
	상업·서비스업 등 3차산업	263	14.79	2.69	전체	7818.62	1123			
정치신뢰감	농수산업 등 1차산업	443	14.07	2.74	집단간	36.89	5	7.38	0.96	0.4391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14	14.08	2.52	집단내	8560.74	1118	7.66		
	상업·서비스업 등 3차산업	263	14.33	2.82	전체	8597.63	1123			
정치참여감	농수산업 등 1차산업	443	13.83	2.84	집단간	80.30	5	16.06	1.85	0.0998
	공업·건축업 등 2차산업	114	13.08	2.37	집단내	9685.75	1118	8.66		
	상업·서비스업 등 3차산업	263	13.57	2.95	전체	9766.05	1123			

의 정책이나 정치지도자 및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믿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공업·건축업(M=13.08)이 가장 높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상업·서비스업(M=13.57), 농수산업과 공무원·교사(M=13.83), 회사원(M=13.93) 순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전체 학생의 정치효능점수(14.72)와 정치신뢰점수(14.02)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異意의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다.

#### 6) 가정의 생활정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가정의 생활정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를 표1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3에 의하면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에 있어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민의무감은 가정의 생활정도가 上인 학생(M=17.81)이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中(M=17.80), 下(M=17.53)으로 낮아지고 있어 생활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거 때의 투표 참여나 법률과 규칙 준수 등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의무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법률이나 규칙 준수 등의 시민의 의무감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효능감은 생활정도가 中인 학생(M=14.78)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下(M=14.42), 上(M=14.41)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생활정도가 中인 부모를 둔 학생(M=14.02)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이 下(M=14.54), 上(M=14.68)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생활정도가 上인 학생(M=13.43)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므로써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中(M=13.68), 下(M=14.31) 순으로 정치에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참여나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류층으로 갈수록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활정도별에 따른 정치태도는 전체 학생의 정치효능점수(M=14.54)와

표13 가정의 생활정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정치태도	생활정도	N	M	SD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P
시 민 외부감	상	37	17.81	1.68	집단간	5.99	2	2.99	0.74	0.4786
	중	997	17.80	1.97	집단내	4552.75	1121	4.06		
	하	90	17.53	2.53	전 체	4558.74	1123			
정 치 효능감	상	37	14.41	3.37	집단간	14.86	2	7.43	1.07	0.3443
	중	997	14.78	2.57	집단내	7803.77	1121	6.96		
	하	90	14.42	3.05	전 체	7818.63	1123			
정 치 신뢰감	상	37	14.68	2.92	집단간	36.48	2	18.23	2.39	0.0922
	중	997	14.02	2.76	집단내	8561.14	1121	7.63		
	하	90	14.54	2.74	전 체	8597.62	1123			
정 치 참여감	상	37	13.43	2.49	집단간	35.84	2	17.92	2.06	0.1274
	중	997	13.68	2.94	집단내	9730.21	1121	8.68		
	하	90	14.31	3.13	전 체	9766.05	1123			

정치신뢰점수 (M=14.41)가 나타나서 異意의 정치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各 變因에 따른 政治態度의 差異

각 변인에 따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차이는 표14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14 정치태도의 발달

태도	학년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전체
시민의무감	17.34	17.58	17.71	18.13	18.04	17.85	17.78
정치효능감	15.04	14.73	14.85	14.49	14.60	14.76	14.75
정치신뢰감	13.17	13.70	13.79	14.41	14.55	14.76	14.06
정치참여감	13.50	14.19	14.06	13.68	13.71	13.23	13.73

정치태도의 영역을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므로 항목간의 점수를 합할 때 가장 낮은 태도점수는 4점이고 가장 높은 태도점수는 20점이며 중간점수는 12점이 된다.

표14에서 보면 시민의무감은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 점수가 18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시민이 국가나 정부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본분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효능감에 있어서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행위가 정치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고한 정치효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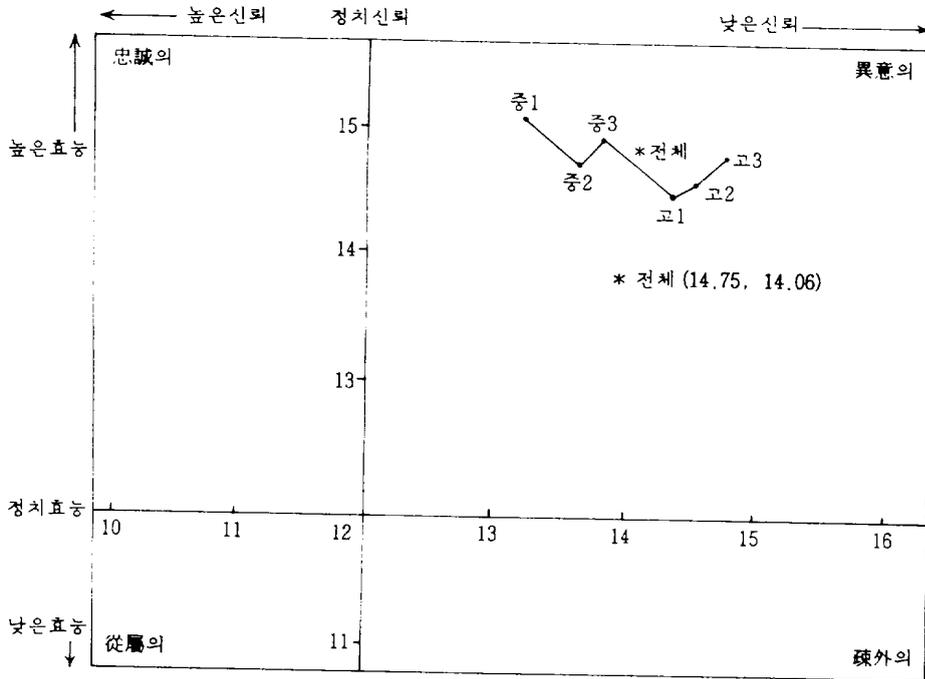
년에 따라 정치효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신뢰감에 있어서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부지도자나 공무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정부활동 전반에 대해서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참여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관성이 없으며 어떤 의미있는 발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에 따른 페이지(Paige)의 4개의 정치태도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는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자.

표14에서 살펴보면 제주도 중·고등학생 중에서 중학생은 정치효능감(14.87)은 중간점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신뢰감(13.55)도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아서 신뢰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중학생들의 전체적인 정치태도는 異意의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의 정치효능감(14.62)도 중간점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정치신뢰감(14.57)은 낮은 신뢰를 보여 異意의 정치태도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는 표14에서의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도 전체 정치효능점수(14.75점)가 중간점수(12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효능이 높게 나타나며 전체 정치신뢰점수(14.06점)도 중간점수보다 높아서 낮은 신뢰를 보이므로 정치태도는 그림4에서 처럼 異意의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異意의 정치태도를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異意의 정치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효능은 높으나 정치신뢰가 낮은 사람들은 정부나 지도자를 불신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으며,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속에서는 개인은 異意의 정치태도를 가지게 되고 정치체제는 불안정하기 쉽다. 그러므로 정치효능이 높고 정치신뢰가 낮은 상태하에서는 정부당국은 강제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는 일반적 기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정치태도를 가지고 정치문화를 분석하는 데 기초적인 척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표15에서 나타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에 따라 정치문화를 설명해 보자.

지방적 정치문화는 특수한 정치대상이나 역할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정향은 사회와 종교정향과 거의 혼동된 상태에 있어 정치제도에 의한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신민적 정치문화는 정치제도의 산출국면에 대한 정향으로 정치제도의 투입국면에 대한 정향은 거의 0에 가깝다. 참여적 정치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제도의 투입국면과 산출국면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든 비호의적으로든 잘 정향되어 있어 정치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주의자도 된다.

표15에 의하면 시민의무감(17.78)은 매우 높은 점수로 시민이 해야 할 본분에 대한 법적 의무감이 강하게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신뢰감

표15 정치태도에 따른 정치문화

정 치 태 도	전 체 평 균
시민의무감	17.78
정치신뢰감	14.06
정치제도의 산출국면에 대한 정향 (시민의무감과 정치신뢰감의 평균)	15.92
정치효능감	14.75
정치참여감	13.73
정치제도의 투입국면에 대한 정향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감의 평균)	14.24

(14.06)은 평균점수보다 높아서 신뢰가 낮게 나타나므로 정부나 지도자 및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효능감(14.75)은 시민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참여감(13.73)은 정치문제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무감과 정치신뢰감처럼 정치제도의 산출국면에 대한 정향(15.92)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감과 같이 정치제도의 투입국면에 대한 정향(14.24)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태도는 지방적 정치문화나 신민적 정치문화보다 참여적인 시민 정치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제도의 투입국면에 대한 정향이 산출국면에 대한 정향보다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14.24대 15.92) 아직도 신민적인 정치문화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 4. 各 變因間의 相關關係

각 정치태도 영역인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사이의 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이들의 유의수준을 검증하여 표16을 작성하였다.

표16 각 정치태도간의 상관관계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시민의무감	1	0.2996 P=0.000***	0.0674 P=0.012*	-0.1446 P=0.000***
정치효능감		1	0.0906 P=0.001***	-0.2295 P=0.000***
정치신뢰감			1	-0.0352 P=0.119
정치참여감				1

\*P<0.05      \*\*\*P<0.001

표16에 따르면 시민의무감과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무감과 정치참여감,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감은 負의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는 한 개인이 시민으로서 선거 때에 투표 참여라든가 법률 및 규칙 준수 등 국가나 정부에 대해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감을 잘 수행하는 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의 관계가 거의 없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지도자 및 공무원에 대한 믿음과도 관계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V. 結論：要約 및 提言

### 1. 要約

본 연구는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역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발달의 차이를 조사 분석하고, 정치태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또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정치태도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밝혀보려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제주시에 소재한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1124명을 표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의 영역과 성별, 학년별, 부모의 연령별, 부모의 학력별, 부모의 직업별, 가정의 생활정도별에 따른 정치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치신뢰감이 높게 나타나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의무감과 정치참여감은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정치효능감은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학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시민의무감은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민으로서 국가와 정부에 대해 해야 할 본분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 선거때에 투표 참여나 법률 및 규칙 준수 등의 무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시민의무감이 낮아지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중학생은 일관성은 보이지 않으나 고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인 정치효능을 보이고 있지만 유의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신뢰감은 중·고등학생들 전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부나 정부지도자 및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참여감은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참여감은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고 있다.

3) 부모의 연령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부모의 학력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시민의무감은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정치신뢰감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정책이나 지도자에 대한 불신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참여감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높게 나타나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부모의 직업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6) 가정의 생활정도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7) 중·고등학교 학생의 전체적인 정치태도의 차이는 정치제도의 산출국면에 대한 정향인 시민의무감과 정치신뢰감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치제도의 투입국면에 대한 정향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감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여적 정치문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시민의무감과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 사이에는 正的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提 言

1)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그 결과를 사회과 교사나 교육전문가 및

학부모에게 공개되고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민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급 활동,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 등의 활성화와 함께 교사의 교육적인 노력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3) 성별, 학년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학생들이 올바른 정치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학생들이 부정적인 정치태도와 정치체제가 불안정한 異意의 정치태도에서 정치불신감을 해소하며 정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적 정치문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 및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주입식 위주의 수업에서 학생중심의 수업체제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또한 교사 자신도 민주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韓國文獻

- 金京雄 編 (1982), 「政治教育論」, 裕豐出版社.
- 金宇泰 (1986), 「政治學」, 蜃雪出版社.
- 金在永 (1982), 「政治社會化論」, 大旺社.
- 金在泳 (1981),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韓國外國語大學 大學院.
- 金在衡 (1989), “社會科 價值教育論,” 「韓國社會科教育學 概論」, 韓國社會科教育研究會 編, 教育科學社.
- 金忠男 (1970), “政治社會化에 관한 一考,” 서울大學校 大學院.
- 朴興壽 (1980), “韓國人の 民主主義 受容能力,” 中央 5월호.
- 徐載文 (1983), “政治文化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19輯, 公州教育大學.
- 李克燦 (1987), 「政治學」, 法文社.
- 李文廈 (1988), “濟州道 中學生의 政治態度 發達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李永鎬 (1981), “政治社會化過程,” 「韓國政治論」, 金雲泰 編, 博英社.
- 李廷植 (1988), “韓國國民學生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圓光大學校 大學院.
- 李鍾烈 (1977), “高等學校 學生의 政治態度 發達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 鄭永潤·尹鍾健 (1986), “大學生의 意識構造에 관한 豫備的 研究,” 「論文集」, 第19輯, 韓國外國語大學校
- 鄭志善 (1982), “學生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威義英 (1972), “政治意識의 民主化,” 「社會科學論集」, 第5輯,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培英社 (1965), 「教育心理學辭典」

도오순 외, *et al* (1977), 「政治社會化 (Political Socialization)」, 鄭世九 譯(1981), 法文社.

## 2. 西洋文獻

〈단행본〉

Almond, G.A. and Powell, B.G. (1978),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Little Brown and Company.

\_\_\_\_\_ and Coleman, James S. (1967),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and Verba, Sidney (1965), *The Civic Culture*, Little Brown and Company.

Best, James J. (1973), *Public Opinion*, The Dorsey Press.

Coleman, James S. (1965),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Easton, David (1969), *The Role Elementary School in Political Socialization*, McGraw-Hill.  
\_\_\_\_\_ (1973),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John Willey and Sons., Inc.

Easton, David and Dennis, Jack (1969),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McGraw-Hill.

Eysenck, Hans J. (1954), *The Psychology of Politics*, Routledge and Kegan Paul.

Hyman, H.H. (1965), *Political Socialization*, The Free Press.

Krech, D., Crutchfield, R.S., and Ballshey, E.L. (1962), *Individual in Society*, McGraw-Hill.

Langton, Kenneth P. (1969), *Political Soc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ssialas, Byron G. ed(1972) , *Political Youth : Traditional Schools :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rentice-Hall.
- Milbrath Lester W. (1965) , *Political Participation : How and Why the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Rand McNally.
- Pye, Lucian W. and Verba, Sidney, ed(1965) ,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binson, John P., Rusk, Jerald G. and Head, Kendra B. ed(1968) , *Measure of Political Attitudes*, Ann 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 Schwartz, D.C. and Schwartz, S.K. (1975) , *New Direction in Political Socialization*, The Free Press.
- Wiseman, H.V. (1966) , *Political Systems*, Routledge.

〈 論 文 〉

- Almond, Gabriel A. (1956) , "Comparative Political System," *The Journal of Politics*, Vol.18, No.3, August.
- Bier, Samuel H. (1958) ,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Patterns of Government*, ed. , Bier, Samuel H. and Ulam, Adam B., Random.
- Camson, W.A. (1971) , "Political Trust and its Ramifications," *Social, Psychology and Political Beheavior*, Aberian G. and Soule J., Chareless E. Merrill Co. ,
- Compell, D.T. (1954) ,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47.
- Easton, David and Dennis, Jack(1967) , "The Child's Auquisition of Regime Norms :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1.
- Froman Jr. , Lewis A. (1961) , "Personality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Journal*

- of Politics*, Vol.23.
- Greenstein, Fred I. (1968), "Political Socializa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4. Macmillan Co. and Free Press.
- Haller, Emil J. (1970),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Children and The Structure of the Elementary School," *Interchange*, Vol.1, No.3.
- Hess, Robert D. (1968), "Political Socialization in the School," *Harvard Education Review*, Vol.38.
- Jennings, M.K. and Niemi, R.G. (1968),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Values from Parent to Chil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2.
- Lyons, S.R. (1970),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Ghetto-Children: Efficacy and Cynicism," *The Journal of Politics*, Vol.32. The Sout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Massialas, Byron G. (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 Muller, E. (1970), "Cross-National Dimensions of Political Competence," in *A. P. S. R.*, 64. September.
- Nie, Norman H. and Verba Sidney (1975), "Political Participation," *Handbooks of Political Science: Non Government Politics*, ed. by Greenstein F.I. and Polsby, Nelson W., Addisonwesleg.
- Paige, J.M. (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 Oct.
- Parsons, Talcott (1959), "The School Class as a Socialization, Some of its Function in America Society," *Harvard Education Review*, XXIX.
- Pye, Lucian W. (1962),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Building," Yale University Press.

Pye, Lucian W. (1968). "Political Culture," Sills, David L.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2, The Macmillan Co. and The Free Press.

Rokeach, Milton (1968~1969), "The Role of Values in Public Opin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2.

Sigal, Robert (1965), "Assumptions about the Learning of Political Values," *The Annals*, 361 (September).



---

〈Summary〉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Cheju-Do

Kim Ja-Hyeon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attitude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Cheju-Do according to their sexes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describ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olitical attitudes as they are stepping to higher grade. Political attitude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areas : citizenship duty,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For this, 1124 students, attending secondary schools in Cheju-city and Sogwip'o, were chosen and questioned on citizenship duty,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by computer and analyzed by using such methods as percentage, mean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F-test to analyze political attitudes according to its ite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attitudes according to their sexes, grade and socio-economic status, to examine

whether the statistical difference is the level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clarify the relations among every variable of attitudes.

The results from such a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respect of sexes, boy students have stronger political trust than girl students. However, girl students have stronger citizenship duty,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an boy students.

2. In the respect of grade, the higher the grade becomes, the stronger citizenship duty grows. Students in political trust have stronger distrust in politics in proportion to their grade.

3. In the respect of parents' education, citizenship duty shows the significance in political attitudes and students whose parents had higher education have much more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politics.

4.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discovered according to their parents' age, jobs and the standard of living.

5.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have participant political culture in that the output and the input of political system shows positive political attitudes.

6. Little correlation between citizenship duty and political efficacy,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was discov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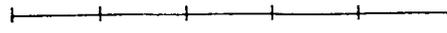
Therefore, to make the students take positive political attitudes and have participant political culture, it is desirable for the teachers to keep the following principles in the classroom : make-up the teaching environment of democratic and rational thought, student-oriented teaching. Most of all, families, schools and societies should make efforts to have much more interest in the effective politic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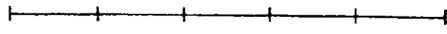
◎ 다음 문항을 읽고 5개의 보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에 V표를 해 주십시오.

〈 시민의무감〉

절대찬성이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절대반대이다.

8.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질 것같이 생각될 때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9.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 쯤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0.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 형편을 모르고 있어도 좋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1. '사람들은 정치를 맡아 하는 정치인이나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정치효능감〉

12. '때때로 정치나 정부는 대단히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3.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무엇이라 하든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날씨와 같아서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4.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5.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투표하는 일이다.' 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_\_\_\_\_

〈정치신뢰감〉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조금    전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6. 여러분은 정부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7. 여러분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_\_\_\_\_

18. 여러분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믿고 있습니까?

\_\_\_\_\_

19. 여러분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_\_\_\_\_

〈정치참여감〉

20. 여러분은 친구들과 정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정도 참가하십니까?

\_\_\_\_\_

21. 여러분은 어른들과 얼마나 자주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쭙어 보니까?

\_\_\_\_\_

22. 여러분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등에서 세계의 정치 형편이나 나라안의 정치 형편에 대해 어느 정도 열심히 듣고 보니까?

\_\_\_\_\_

23. 여러분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로 인하여 친구들과 의견 대립으로 다툰적이 있습니까?

\_\_\_\_\_

